2026. 3. 16

금융 Weekly Insight

높은 변동성 지속 – Valuation 매력도가 보다 중요해진 시점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3월 셋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KOSPI는 지난 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높은 변동성 장세를 시현. 은행, 증권, 보험업종 모두 각각 0.9%, 0.2%, 2.0%의 조정을 시현.
-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 여부는 물론, 환율, 유가, 물가, 금리 등 다양한 변수들이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변동성을 높이는 양상. 이와 같이 변동성 및 투자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개별 종목의 Valuation 매력도가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
- 1) 중장기적 관점에서 증시 저변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증권업종 및 2) 26년 실적 및 주주환원율 제고가 기대되는 은행업종 중 Valuation 매력도가 높은, 즉 downside는 제한되고 환경 개선시 upside가 크게 나타나는 기업에 초점이 필요한 시점.

금융 Overview

- 은행 – Downside 제한적 + 단기 event에 초점: 은행주는 0.9% 하락. 하지만, 은행주 26E PBR이 0.78배까지 조정을 받은 시점에서 올해 예상 ROE 및 주주환원율을 감안 필요. 즉, 단기 변동성을 떠나 펀더멘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Valuation은 추가적인 downside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시점에서 은행주의 upside에 대한 매력도가 더욱 제고되었음을 고려 필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홍콩 ELS 과징금 확정 규모가 관건이 될 전망이며, 4월 들어서는 미국 및 국내 은행들의 실적 시즌이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 필요. 특히, 최근의 매크로 변수 변화 속에서 은행들의 상대적인 실적 안정성이 확인될 경우, 이는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초점 필요.
- 증권 – 시장 흐름과 연동되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음: 증권 업종 주가는 0.2% 하락하며 보합 흐름세를 보임.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매크로 안정화 및 지수 반등을 모색하는 거래일에는 증권 업종 주가 역시 높은 상승 탄력성을 시현하였음. 이는 결국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뒷받침되는 상황이 시장을 초과하는 주가 하락세를 방어하고 있는 영향이라고 판단. 1분기 거래대금은 전분기 대비 100% 이상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사별 운용 수익 또한 주식성 자산을 중심으로 긍정적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즉, 4말~5월초 예상되는 1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 주가 조정 국면에서는 증권 업종에 대하여 비중확대 위주로 접근이 타당.
- 보험 – 방어주 성격은 보이고 있으나…: 보험 업종은 w-w 2.0% 하락하며, KOSPI와 유사한 흐름 시현. 다만, 시총 비중이 높은 삼성생명(+2.9%)이 전자 지분 매각 기대감에 따라 주간 상승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업종 수익률은 더욱 하락. 이는 1) 주총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보험사 별 유의미한 주주환원정책의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2) 전주 의료계 반발에 따른 관리급여 지정 보류 등 뉴스 또한 투자심리에 악재로 작용한 까닭으로 판단. 보험업종의 경우 어려운 펀더멘탈 국면에 매크로 환경 변동성 확대 등으로 우려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3/9) 토스뱅크 순익 1000억원 육박 - 토스IPO에 긍정적 영향 기대** - 토스뱅크가 25년 연간 1천억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토스뱅크의 지분을 보유한 하나금융지주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1,01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회계 반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순이익은 9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짐. 이는 24년 432.7억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준. - 비바리퍼블리카, 즉 토스의 IPO에 있어 토스뱅크의 안정적 흑자 구조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참고로, 비바리퍼블리카는 그동안 미국 IPO를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국내 증시에도 순차적으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업계에서는 동사에 대한 기업가치를 10조~20조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	**디지털/모바일 뱅킹의 확산이 가져온 변화:** 과거 리테일 뱅킹은 고객과의 접점이 중요했던 만큼, 상대적으로 판관비용률이 높은 구조였으나, 뱅킹의 디지털화 및 모바일화는 반대의 효과를 창출. 즉, 은행들은 개인 수신 및 여신 취급에 있어 과거에 비해 인적 노동 요구가 대폭 감소. 실제로 대부분의 여수신 기능은 모바일 앱을 통해 대체. **영업 레버리지 효과 확대 - CIR의 하락 지속 + 은행 ROE의 추가 상승 전망:** 은행의 자산 성장에 수반되는 노동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영업레버리지 효과의 확대를 의미. 즉, 과거와 달리 지점 직원수를 늘리지 않고도 개인 고객 대상 여수신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것. 이는 은행 입장에서 CIR (cost-to-income ratio)의 감소 및 ROE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시사. **서구권 주요 은행들의 화두 또한 operational leverage 확대:**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음. 최근 미국 주요 은행들은 10%대 중반대의 ROTCE를, 유럽 주요 은행들은 심지어 20% 이상의 ROTE를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의 핵심은 영업 레버리지의 확대. 한국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추후 AI의 활용에 따라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3/10) 신한지주 - LTV 과징금 관련 행정 소송 시 승소 가능성 높은 것으로 전망 - 신한지주는 3월 26일 열릴 정기 주총 안건 설명 자료에서 LTV 담합 과징금 관련하여 다수의 법무법인 자문 결과 행정 소송 시 고정위의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가 확정 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음. 참고로, 공정위는 은행권에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 신한지주에 따르면 해당 정보 교환은 금융 당국 인지 하에 담보 가치 산정이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리스크 평가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이후 오히려 대출 규모와 이자수익이 감소하였고, 특히 신한은행은 LTV 정보가 대고객 금리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LTV 정보 교환을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접근한 것은 공정위와 금융업권간의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라 언급.	**LTV 담합 과징금은 당초 우려대비 완화된 가운데, 추가 완화 시 긍정적 기대:** 당초 LTV 담합 과징금은 은행권 총 1~2조원까지 언급되었으나, 최종 부과 규모는 2,720억원으로 크게 감소. 다만, 이는 여전히 은행들에 부담 요인인데, 과징금이 운영 리스크에 반영, CET-1 비율의 하락을 야기하기 때문. 특히,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진 점과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강화 필요성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 부정적 요인이라 판단. 하지만, 신한지주가 밝힌 바와 같이 최종적인 부과 규모가 없을 경우, 이는 역으로 그만큼 긍정적임을 시사.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3/10) 70대도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기에 나서다** - 미래에셋증권이 자사에 가입한 퇴직연금 계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퇴직연금의 DC형과 IRP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실적 배당형의 비율은 72%로 원리금 보장형 28%의 두 배를 상회. 참고로 2020년에는 원리금 보장형이 45.2%였으나 판도가 바뀐 것. - 이러한 수익률 중심의 운용은 전세대에 걸쳐 확산 중. DC, IRP 가입자 중 40대 가입자의 실적 배당형 비율은 75.3%로 최고를 기록. 50대 72.8%가 다음으로 이들의 2020년 말 당시 비중은 각각 62.3% 및 55.4%였던 점을 감안하면 빠르게 상승한 것. - 특히 대반전은 70대. 이들의 실적배당형 비중은 2020년 30.6%에서 올해 1월 말 72.2%로 급등.	**증시 활황과 금리 하락 - 연금 운용 방식의 변화가 머니무브의 한 축:** 과거와 달리 현재의 머니무브에 있어 한 축은 퇴직연금이라 판단. 정기예금 금리가 재차 3% 이하로 낮아진 가운데, 이전의 미국 증시 활황, 그리고 지난 해부터 국내 증시의 경이로운 수익률은 퇴직연금의 증시 투자 유인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라 판단. 특히, 높은 주거비용과 생활 비용으로 인해 투자 여력이 여의치 않은 세대들의 경우, 퇴직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자금원이라는 점에 초점 필요. **DB에서 DC, IRP로, 그리고 이들 내에서 재차 실적배당형으로 이동 지속 기대:** 여전히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주류는 DB형. 이는 역으로 DB에서 DC 및 IRP로, 그리고 이들 내에서 재차 실적배당형, 즉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투자로의 흐름이 지속될 여력이 여전히 높음을 시사. **퇴직연금의 힘 - 적립식 + 장기투자:** 퇴직연금의 힘은 일회성의 자금 유입이 아니라, 매월 적립되는 구조로 현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점과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 **참고 - 여전히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변화 여력은 크다:** 한편, 해당 기사에 기초해 볼 때, 70대 중 실적배당형 비중이 72%에 달하는 만큼, 오히려 퇴직연금 내에서 추가적인 증시 유입 여력이 적은 것으로도 해석 가능. 하지만, 발표 주체가 증권사 중 하나로 이들 증권사 계좌에 DC 및 IRP를 예치한 소비자들은 Risk-taking 비중이 월등히 높고, 여전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DB형 비중이 높은 만큼, 변화의 여지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실제로 미래에셋의 DC형 적립금 잔액은 16.3조원으로 시장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3/13) 2금융권 대출 대상 은행권에서 대환대출 상품 출시 예정 - KB는 오는 20일 제2금융권 대환전용 상품 출시 예정. 이는 2금융권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금리는 연 9.5% 이하로 적용. 대출 공급 규모는 매년 500억원 한도로 5년간 2,500억원 규모. 이번 상품은 대환대출 신청 대상 범위를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로 확대한 것이 특징. - 우리은행도 우리금융 그룹 내의 2금융권 계열사 대출 보유 고객이 우리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 다만, 최대 2천만원 한도로 대환대출이 지원되고, 금리 상한은 7%로 제한됨. - 하나은행은 서울형 사업자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 중인데,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이며 보증 비율에 따라 연 2.55~2.75%의 낮은 금리가 적용.	**은행권의 포용 금융도 지속:** 생산적 금융에 이어 은행권의 포용금융도 지속. 2금융권의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지향하며,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는 구조인 점은 과거와 다른 모습. 이와 더불어 해당 대출의 리스크와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부담을 감안,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라 판단. 이는 은행들의 대출 총액 한도 혹은 개별 대출 한도 설정에 드러나는 사항. **은행권의 포용금융 강화 - 다만, 인터넷은행의 소호대출 증가 기조에는 '이상무' 판단:** 이와 같은 은행권의 포용금융 강화 기조는 올해 소호대출 증가에 주력하고 있는 인터넷은행들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현재 기사에 언급된 은행들의 기조는 자본비율 및 건전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가령, 자본비율 제고 니즈가 높은 우리금융은 그룹 내 대출의 대환에 한도를 두고 운용 예정이고, 자본비율 방어 니즈가 높은 하나금융은 보증재단과의 협업을 활용하며, KB는 총액 한도를 500억원으로 제한한 점이 이를 방증.
	(3/15) 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 6.5% 상회 - 반면 신용대출은 증가 - 금융업계에 따르면, 4대 은행의 13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4.25~6.504%로 약 두 달 사이 상단이 20.7bp, 하단이 12.0bp 상승. 이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8bp 상승한 것에 기인. - 금리 상승에도 불구,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6.6조원으로 2월말 대비 0.7조원 증가. 주담대는 같은 기간 0.8조원 감소하였지만, 신용대출이 1.4조원 급증. 가령, 해당 증가 폭이 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21년 7월 순증액 1.9조원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할 수 있음. -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 신용대출 증가는 증권사 이체가 주요 원인으로 최근 증시가 급락할 때, 증권사 향 하루 이체액이 1,500억원을 넘기도 했다고 언급.	**증시의 높은 변동성 이면의 은행 신용대출 증가에 초점 필요:**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 및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일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수 있는 개인 투자자발 증시 변동성 및 이들 투자자들의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를 제기. 특히, 3월 들어 주담대 감소 속에서도 이와 같은 개인 신용대출의 조단위 증가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고려 가능. **다만, 은행권 대출자의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 판단:** 다만,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에 초점 필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취급 시, 차주의 DSR은 물론 직업과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한 대출 회수 가능 여력 등을 모두 고려한 후 대출을 취급하는 점을 고려 필요. 물론, 최악의 경우 일부 개인 신용대출은 연체 및 충당금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을 것. 하지만, 2금융권의 신용대출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3/15) 1.4조 ELS 과징금 얼마나 감소 가능? - 3/18 최종 결정** - 은행권에 대한 홍콩 ELS 과징금이 3월 18일 확정 예정. 제재심을 통해 당초 2조원에서 1.4조원까지 30% 감경되었으나, 은행권은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며 부담을 호소 중. 특히, 4대 금융그룹의 생산적금융이 향후 5년간 4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주 금융위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 - 은행들은 자율배상 대상자 중 96.1%에 대해 총 1.34조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제재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 은행권의 마지막 기대는 금융위의 직권감경.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최종 과징금은 금융위가 금융시장 또는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확정하게 되는 구조.	**적정 수준의 과징금 감경시 긍정적 - 실적을 넘어 예측가능성까지 고려 필요:**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이 감경될 경우, 은행업종에는 긍정적 영향을 기대. 1) 기존 은행들의 조단위 자율 배상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2)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3) 은행들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한 만큼, 추가 실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며, 4) 은행의 자본비율에 대한 부담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은행의 여신 성장 및 주주환원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궁극적으로 지난 해 하반기부터 은행주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함은 물론 주가 변동성을 야기했던 이슈의 긍정적 방향으로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
증권	**(3/12) 목표전환형 펀드로 엑셀 밟는 증권사…"변동성 증시엔 신중해야"** - 증권사들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단기간에도 안전자산으로 전환되는 펀드를 통해 재가입을 유도하며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음 - 목표전환형 상품은 사전에 정한 수익률(연 5~7%)에 도달하면 주식이나 ETF와 같은 고위험자산이 채권, MMF로 전환되는 특징 -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공격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	**자본시장 호황은 다양한 관점에서 증권사 수익을 강화:** 증시 호황이 단순 브로커리지 수익을 넘어 증권사 별 자산관리 수수료 수익 기반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 목표전환형 펀드의 조기 환매 증가에 따른 재가입이 이어지며, 이는 증권사의 판매 보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이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장기성 자산의 주식 전환 사례 등도 이어지고 있어, 증권사들의 머니무브에 따른 수익기반 강화는 지속될 전망
	(3/10) 증권사 융자 중단 영향?…'빚투' 이달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1.7조원으로 집계되며, 5일 역대 최고치(33.7조) 대비 2조원가량 감소 - 신용거래 잔고가 줄어든 데에는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되면서 신용거래융자 신규 매수를 일시 중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 - 다만, 일각에서는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만큼 신용공여 잔액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	**대다수 대형사 신용공여 한도 소진, 리스크 관리가 관건:** 증권사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에 대비 100% 한도가 존재하며, 증시 상승에 따라 대다수 증권사들의 한도가 소진된 상황. 결국 가용 레버리지 관점에서의 증시 상승 탄력은 다소 축소될 개연성 존재. 한편, 증시 급락 시 증권사들의 신용 잔고 관련 충당금 손실 등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보험	**(3/11) 보험보다 투자로 버텼는데…환율 요동에 보험사 수익구조 '흔들'** - 올해 보험업 기본 업황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환율까지 요동치며 투자손익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우려 증가 - KDB생명은 당기순이익 30% 이상 변동 공시를 통해, 금융자산 평가손익 감소 및 외화자산 헤지 비용 증가 등을 주요 요인으로 설명 - 업계 관계자는 "특히 외화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는 완충 장치가 적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설명	**보험사는 100% 환헤지가 원칙, 헤지비용 상승은 부담:** 환율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외화자산 편입 과정에서 대부분 100% 환헤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평가손익 관점에서 변동성은 제한적일 전망. 다만, 금리차 확대는 환헤지비용(스왑 코스트)를 상승시키며, 이에 따라 신규 자산 편입 시 관련 비용 확대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3-16 (월)		미국 2월 산업생산
		미국 3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중국 2월 주택가격지수
		중국 2월 실업률
		중국 1-2월 산업생산
		중국 1-2월 고정자산투자
		중국 1-2월 소매판매
		중국 2월 외국인 직접 투자
2026-03-17 (화)	2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잠정)	미국 2월 잠정주택판매지수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미국 3월 NAHB 주택 시장지수
		미국 20년 만기 국채 입찰
		독일 3월 ZEW 경기기대지수
		일본 1월 3차산업지수
2026-03-18 (수)	2월 고용동향	미국 FOMC 회의 발표
		미국 2월 생산자물가지수
		미국 1월 공장주문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주간 원유재고
		유로존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
		일본 BOJ 금융정책회의
2026-03-19 (목)	국회 본회의	미국 1월 신규주택매매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결정
		미국 3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
		미국 1월 도매재고지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1월 경기선행지수
		미국 10년 만기 국채(TIPS) 입찰
		영국 영란은행(BOE) 기준금리 결정
		영국 1월 실업률
		일본 1월 핵심기계류수주
		일본 1월 산업생산(수정치)
		대만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
2026-03-20 (금)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유로존 1월 경상수지
		독일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영국 2월 공공부문 순차입/순상환
		일본 증시 휴장
		중국 3월 대출우대금리(LPR) 발표

자료: 각 사,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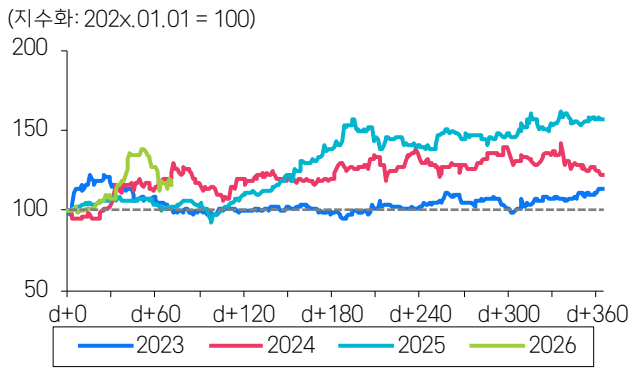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4,386.7	5,487.2						(1.7%)	2.5%	113.2%	30.2%
	KRX은행	197.0	1,513.6						(0.9%)	(11.6%)	77.5%	16.1%
	KRX증권	95.3	2,650.1						(0.2%)	11.8%	234.5%	73.2%
	KRX보험	96.3	3,210.4						(2.0%)	(0.4%)	72.9%	19.9%
	결제 지수**	1.530	n/a						(1.2%)	(4.8%)	72.6%	16.5%
은행	KB금융	55.5	148,900	57.9	0.9	11.1	8.2	11.9	1.0%	(9.5%)	89.4%	19.4%
	신한지주	43.1	90,800	54.4	0.8	10.3	7.7	14.9	(1.1%)	(10.0%)	98.0%	18.1%
	하나금융지주	30.3	108,900	50.1	0.7	10.5	6.8	11.7	(1.3%)	(13.4%)	76.8%	15.7%
	우리금융지주	23.6	32,200	42.2	0.7	10.3	7.0	9.3	(2.6%)	(14.9%)	100.9%	15.0%
	기업은행	18.4	23,100	35.5	0.6	8.9	6.9	5.3	(2.3%)	(7.6%)	46.4%	10.3%
	BNK금융지주	5.7	18,270	45.3	0.5	8.8	5.9	18.3	(0.8%)	(9.8%)	77.0%	15.1%
	JB금융지주	5.7	30,500	42.4	0.5	9.1	5.7	11.7	3.7%	(4.4%)	85.7%	18.9%
	iM금융지주	2.7	16,660	49.3	1.0	13.4	7.5	8.7	(2.3%)	(14.7%)	88.5%	7.1%
	카카오뱅크	11.4	23,850	50.0	1.6	7.8	20.8	14.0	(1.0%)	(15.0%)	3.9%	10.4%
증권	미래에셋증권	39.4	69,500	58.0	1.3	11.2	11.8	14.0	3.6%	35.5%	621.7%	197.6%
	NH투자증권	11.3	31,700	49.3	0.9	10.9	8.5	2.0	(1.6%)	9.3%	115.2%	50.2%
	한국금융지주	12.2	219,500	20.2	0.9	13.6	7.1	-22.4	(4.6%)	(3.1%)	194.2%	35.7%
	키움증권	11.6	429,000	28.3	1.1	19.1	6.7	14.4	(1.5%)	(4.1%)	253.1%	48.2%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9.6	112,000	49.9	1.6	24.4	7.0	8.8	(2.1%)	(14.6%)	(4.9%)	(1.0%)
	삼성화재	21.8	474,000	41.1	1.2	12.4	9.5	12.8	(4.5%)	(13.7%)	22.3%	(4.6%)
	삼성생명	43.2	216,000	45.0	0.6	5.3	12.1	4.1	2.9%	8.0%	159.9%	37.1%
	DB손해보험	12.3	177,300	28.7	1.0	19.2	5.2	15.6	(5.9%)	(0.3%)	84.5%	35.2%
	한화생명	4.1	4,770	16.4	0.2	5.6	4.1	37.8	(3.6%)	12.1%	74.1%	46.5%
	현대해상	2.7	29,800	11.7	0.5	17.5	2.9	18.3	(3.4%)	(9.1%)	27.9%	(3.2%)
결제	카카오페이	7.9	58,200	n/a	n/a	5.6	78.3	57.5	(5.5%)	(5.7%)	90.2%	18.5%
	NHN KCP	0.8	19,600	n/a	n/a	17.2	14.1	16.1	(3.2%)	(6.2%)	150.3%	31.5%
	KG이니시스	0.3	10,470	n/a	n/a	7.5	4.8	5.5	(1.2%)	(7.3%)	22.5%	2.4%
	KG모빌리언스	0.2	5,000	n/a	n/a	10.7	4.8	8.1	0.0%	(8.1%)	19.2%	6.4%
	나이스정보통신	0.3	26,400	n/a	n/a	9.2	5.6	29.7	4.6%	6.0%	51.8%	4.1%

참고: 3/13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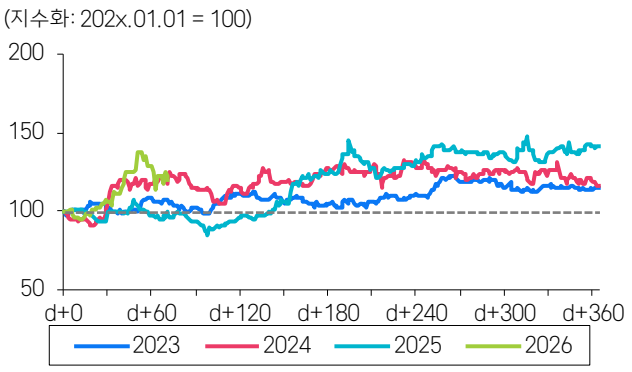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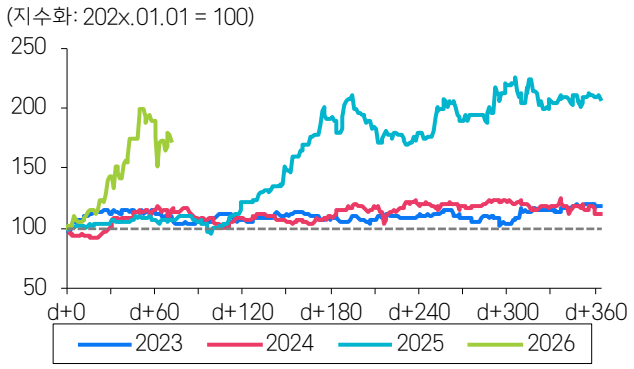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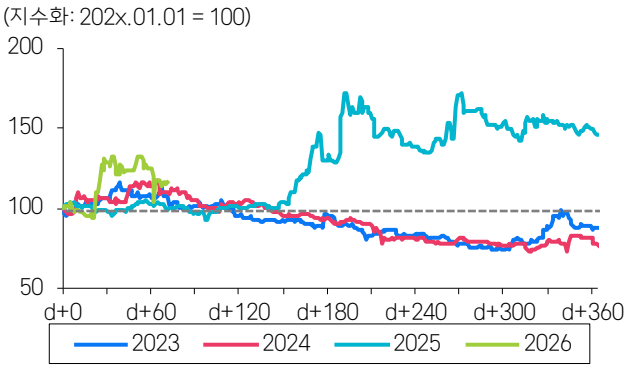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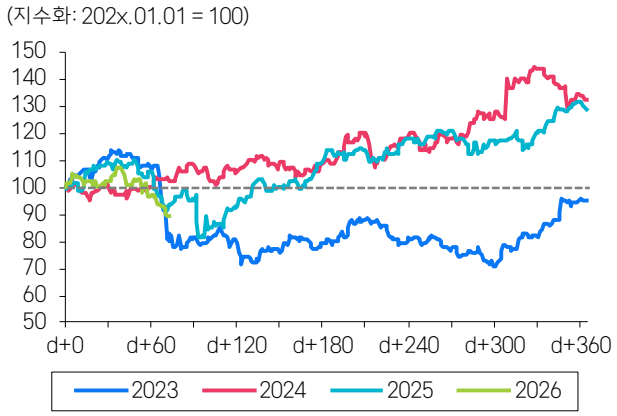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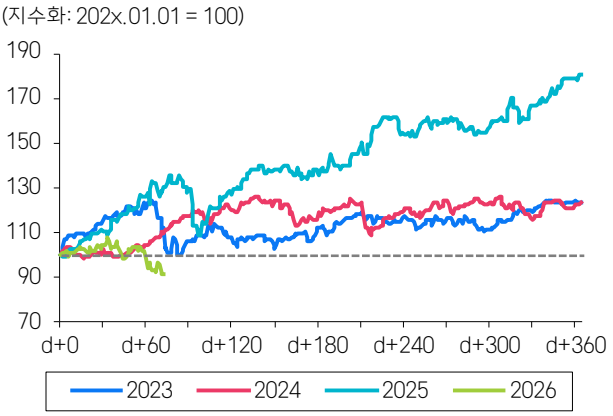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764.4	84.2	2.1	16.4	13.1	7.8	0.0	(6.3)	21.9	(12.0)
		Bank of America	335.3	98.5	1.2	11.3	10.8	12.3	0.0	(11.1)	14.3	(15.1)
		Citigroup	184.9	119.6	0.9	9.2	10.3	46.8	0.0	(4.7)	53.7	(9.4)
		Wells Fargo	228.6	98.3	1.3	12.7	10.6	11.2	0.0	(14.8)	4.6	(20.5)
		PNC Financial	81.1	67.0	1.3	12.8	11.1	9.3	0.0	(12.3)	16.3	(3.6)
	유럽	Banco Santander	160.1	62.7	1.3	13.5	9.1	9.3	0.0	(7.3)	53.5	(5.3)
		Unicredit	109.4	84.3	1.4	16.7	8.5	5.8	0.0	(11.5)	20.5	(10.5)
		BBVA	117.5	86.1	1.7	19.3	8.8	16.4	0.0	(7.7)	36.6	(10.2)
		ING Group	75.1	82.6	1.3	12.8	9.8	5.5	0.0	(7.0)	22.2	(5.7)
		Lloyds	73.4	82.3	1.3	13.8	10.2	42.2	0.0	(6.2)	35.4	(4.1)
		Barclays	70.6	62.5	0.8	10.7	9.1	21.3	0.0	(14.9)	31.0	(18.8)
	일본	Mitsubishi UFJ FG	197.5	61.1	1.4	10.7	13.6	21.7	0.0	(8.8)	32.8	6.5
		Sumitomo Mitsui FG	122.5	54.3	1.3	10.7	12.4	36.7	0.0	(12.8)	32.1	1.3
		Mizuho FG	95.7	68.5	1.4	11.0	12.9	35.8	0.0	(15.7)	46.0	7.6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51.4	29.9*	0.6	9.3	6.3	2.1	0.0	(1.1)	12.0	0.6
		China Construction Bank	271.0	29.9*	0.6	9.9	6.2	(2.0)	0.0	(1.2)	15.8	2.9
		Agricultural Bank of China	326.3	29.4*	0.6	10.0	6.6	4.3	0.0	(4.8)	3.4	(11.2)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56.8	N/A	1.4	6.0	23.4	(32.5)	0.0	(2.2)	(4.7)	(2.6)
		AIG	41.2	76.2	0.9	10.1	10.0	흑전	0.0	(2.0)	(7.7)	(10.3)
		Travelers Insurance	65.4	77.7	1.8	17.7	11.1	(0.5)	0.0	2.8	15.9	4.3
	유럽	Allianz	153.9	78.5	2.1	18.2	11.5	11.2	0.0	(4.1)	0.7	(9.3)
		AXA	91.5	50.4*	1.7	17.8	8.6	27.0	0.0	1.5	(1.4)	(6.5)
		Generalli	60.6	57.5*	1.5	14.2	11.2	11.2	0.0	(3.1)	7.0	(4.3)
	일본	Tokio Marine	71.6	40.9*	2.2	20.1	11.1	(2.0)	0.0	(5.6)	5.8	1.5
		Daiichi Life Insurance	33.0	56.2	1.4	12.2	12.4	(1.0)	0.0	(4.3)	25.5	9.0
	중국	Ping An Insurance	153.7	35.1*	1.1	14.1	8.0	9.3	0.0	(11.9)	26.7	(4.5)
		China Life Insurance	153.2	15.5*	1.3	28.6	4.8	53.8	0.0	(16.7)	70.0	2.6
		PICC P&C Insurance	44.7	34.1*	1.2	16.4	7.7	41.5	0.0	(5.5)	16.2	(3.8)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41.2	98.7	2.1	16.2	13.4	13.8	0.0	(13.6)	44.5	(11.0)
		Morgan Stanley	245.9	72.0	2.2	16.8	13.7	10.6	0.0	(9.5)	34.3	(12.8)
		Charles Schwab	167.8	97.8	3.4	21.8	16.3	22.6	0.0	(0.7)	20.7	(6.9)
		Robinhood	66.1	39.4	5.9	21.8	30.0	19.3	0.0	(3.4)	87.0	(35.1)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06.0	82.5	5.9	34.9	17.0	14.4	0.0	(11.1)	12.9	(18.9)
결제	미국	VISA	599.5	21.7*	14.5	60.2	24.3	24.0	0.0	(2.2)	(7.4)	(12.4)
		MasterCard	444.2	17.6*	40.9	193.3	25.8	16.6	0.0	(3.9)	(5.6)	(12.8)
		PayPal	41.3	5.2*	1.9	23.1	8.7	(4.2)	0.0	11.4	(34.9)	(23.1)
	유럽	Adyen	32.9	0*	4.4	21.3	23.5	15.8	0.0	(0.5)	(39.4)	(33.6)
핀테크	미국	Block	35.8	0*	1.5	9.7	19.1	49.0	0.0	20.1	4.5	(8.1)
		Upstart	2.6	0*	2.8	20.3	25.4	130.3	0.0	(14.1)	(45.7)	(39.7)
		Affirm	15.6	0*	4.0	10.6	42.6	633.3	0.0	(5.9)	(6.4)	(37.0)
	중국	LuFax	2.4	N/A	N/A	2.4	N/A	흑전	0.0	0.0	0.0	0.0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3/13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